

## 포천시스키협회 창단식 초대 김연태 회장 就任

### 2005년 베이스타운에서 첫 대회 개최 예정



지난28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는 포천시 체육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스키협회 창단식이 개최됐다.

지난 28일 오후 7시에 포천시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는 포천시스키협회 창단식 및 취임식이 열렸다. 스키협회 및 관내 체육관련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김연태를 스키협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연태 회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동계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협회를 출

범시켰다"며 "나아가 포천시 체육발전에도 공헌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창단식에서는 임원진을 함께 위촉했는데 부회장은 장규진, 정호열, 이재원씨가 맡게 되었으며, 김재천씨가 전무이사로 위촉돼 협회 설립을 맡게 됐다.

포천시스키협회는 내년 초 베이스타운에서 창단 첫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일동종합고등학교 바이에슬론부 유망주들이 참석해 창단식을 더욱 빛내 주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11월2일 자원봉사단체 한마음체육대회 봉사자간의 화합의 장 마련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2일 포천시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단체 연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들이 한 공간에 모이도록 써 타 단체의 특성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체육대회를 통하여 봉사자간의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및 동아리 회원, 자원봉사 활동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차진석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단축마라톤 優勝

#### 포천시, 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 선전

제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가 고양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24일 개최됐다.

이날 경기는 5km의 달리기와 걷기, 10km 마라톤으로 펼쳐졌으며, 남자부의 차진석 선수가 20대부 1위를, 이선호 선수가 30대부 3위를 거두었다.

차진석 선수는 수원의 조래진과 홍승길 선수를 힘겹게 누르고 37분 17초로, 이선호 선수는 35분 17초로 안양의 최정택 선수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수원시(530점)가 고양시(390점)와 용인시(270점)를 누르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부 이화 선수는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했으나 상위권으로 대회를 마감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도지사기 골프대회 포천시 여자부 단체전 2위 13명 선수 출전, 단체전 243타로 2위 차지

지난 29일 제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양주시 로얄CC에서 개최된 가운데 포천시 여자부가 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포천시(감독 김삼길)는 선수포함 총 13명이 대회에 출전했다. 포천시는 구순자, 윤문자, 김지현, 이봉석선수가 대회에 출전했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인터뷰- 체육우수지도자④

- 김광명 일동종합고등학교 바이에슬론부 코치

### “바이에슬론, 세계제패를 꿈꾼다”

들기만 해도 생소한 동계스포츠 종목인 바이에슬론 선수를 양성하는 곳이 포천에 있다.

일동종합고등학교 바이에슬론부 코치 김광명(28).

대학재학때 부상과 부진을 털어버리고 작년 10월부터 모교로 돌아와 코치생활을 하고 있는 김코치는 이 종목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김코치는 일동중고(감독 서덕원) 뿐 아니라 중학교(감독 류규열)팀의 코치이기도 하다. 일동중에 남자 7명, 여자 3명을 종고에 남자 4명, 여자 3명의 선수가 그의 제자들이다.

일동중고에 바이에슬론부가 창단된 건 1990년부터다. 이후 1995년 전국체전때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팀으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올해까지 두차례 전국을 제패할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일동중학교에서도 1995팀을 창단해 고등학교 선배들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코치는 “한국에서 바이에슬론 부를 갖고 있는 팀은 전라, 강원, 경기, 서울 4곳 밖에 없다”며 “일동중고는 그중 최고의 팀이며 경기도 유일의 팀이라며 학교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고의 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잘 따라주어야 한다는 김코치는 바이에슬론부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름엔 기초체력훈련과 톨러스키연습으로 훈련을 하고 겨울엔 바이에슬론 슬로프가 있는 용평에서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이루어진다”며 “바이에슬론은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만큼은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밝힌다.

“본인이 기량이 있고, 노력만 한다면 진로문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며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도 실업팀 및 대학진학 등 타 종목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소한 분야이며 힘든 운동이어서 포기하는 학생이 많으며 걱정이 앞서서 김코치는 잠시 표정



일동종합고등학교와 일동중학교 바이에슬론부 코치를 맡고 있는 김광명코치와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김코치는 “바이에슬론이 타 종목과 비교해도 결코 경제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일동중고에서는 선수를 선발할 때 우선 가정형편을 고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고 운동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며 “하지만 최근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 운동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요즘의 체육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선수가 잘 따라줘서 한해를 무사히 지낸다”는 김코치는 최근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오르는 계절이 다가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최근 스키협회의 창립식에 초청된 일동중고 바이에슬론부 김코치와 선수들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자랑으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약속한다”며 세계제패를 다짐했다.

바이에슬론은 두 개(스키, 사격)의 경기를 뜻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58년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려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지는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또 바이에슬론의 경기종목은 개인종목, 스피드스키, 계주경기, 추적경기, 집단출발경기가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수영대회

최연소 김건우(가사면), 최고령 오명자(소흘읍) 최우수상 수상



제2회 포천체육회장기 수영대회에 참가한 코치들이 결승점에 끝나는 선수들의 기록을 체크하고 있다.

지난 26일 포천시 소흘읍 청명스포츠클럽 수영장에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수영대회가 개최됐다. 포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포천시수영연맹(회장 태천만이) 주관한 경기는 경영 6종목으로 예선을 거치지 않고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개인혼영, 계영 종목으로 미취학부와 60세 이상부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진행했다.

단체전에서는 소흘읍이 일동면과 군내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각 부별 최우수상은 ▶최연소부 김건우(가사면) ▶최고령 오명자(소흘읍) ▶남학생부 심안(일동중 2년) ▶여학생부 윤재연(일동중 4년) ▶남자일반부 전영연(군내면) ▶여자일반부 박혜경(소흘읍)이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일동중, 중, 고 선수들이 싱크로나이즈 시범경기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건강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한

# 헬렌 히-터

필립스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켰습니다

헬렌 히-터는 난방 뿐 아니라 치료기에도 사용되는 **시계열 히터**입니다.

## 우京 아이티

<p>-모델명: 엘렌-S(HH-7S)스탠드형</p> <p>-사양: 5단 온도선택, 5단 온전시간 선택, 불제근접시 저전력으로 자동절제, 리모콘 병행 사용, 전도 스위치 기능</p> <p>-정격: AC 220V 60Hz 1800W</p> <p>-규격: 752mm×320mm×323mm</p> <p>-몸체재질: 초내열 ABS</p> <p>-중량: 3.5kg</p>	<p>-모델명: 엘렌-H(HH-7S)벽걸이형</p> <p>-사양: 5단 온도선택, 5단 온전시간 선택, 리모콘 병행 사용</p> <p>-정격: AC 220V 60Hz 1800W</p> <p>-규격: 200mm×456mm×110mm</p> <p>-몸체재질: 초내열 ABS</p> <p>-중량: 2.15kg</p>
<p>-모델명: WK-S120(스탠드형)</p> <p>-사양: 콘트롤러부착, 불륨에 의한 온도 선택</p> <p>-정격: AC 220V 60Hz 1800W</p> <p>-규격: 750mm×420mm×150mm</p> <p>-몸체재질: STEEL</p> <p>-중량: 2.95kg</p>	<p>-모델명: WK-H120(벽걸이형)</p> <p>-사양: 콘트롤러 별도, 불륨에 의한 온도 선택 가능</p> <p>-정격: AC 220V 60Hz 1800W</p> <p>-규격: 450mm×150mm×130mm</p> <p>-몸체재질: STEEL</p> <p>-중량: 2.25kg</p>

### 헬렌 히-터의 특징

- ◆근적외선에 의한 쾌적한 난방
- ◆저렴한 유지비와 뛰어난 경제성
- ◆순간적인 히팅(2,200℃까지 즉시 발열)
- ◆긴 수명의 펌프 채용(6~7년)
- ◆초경량의 안전한 히터
- ◆냄새가 없고 산소가 소모되지 않아 환기 불필요 등